



보도시점 2025. 5. 7.(수) 11:00
5. 8.(목) 조간

배포 2025. 5. 7.(수) 09:00

감염병 매개 진드기 활동 대비, 검역본부 감시망 강화

- 올해 10월까지 전국 59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및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감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우점종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를 포함한 참진드기 4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4종 가축(소, 염소, 말, 사슴) 사육 농가 주위 59곳의 감시 지점에서 월별로 채집한 후 종과 발육단계를 분류하여 평년 대비 분포 변화를 평가하고,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 발생 현황과 신종 참진드기 매개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자체에 방역강화와 예방소독을 권고하고, 병원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드기 예방수칙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신종 진드기 매개 질병의 국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참진드기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에 따라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는 진드기 방제와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참진드기 감시 및 진드기 매개 질병 연구를 지속하여, 축산농가와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권역별 참진드기 감시 지점 및 국내 활동 참진드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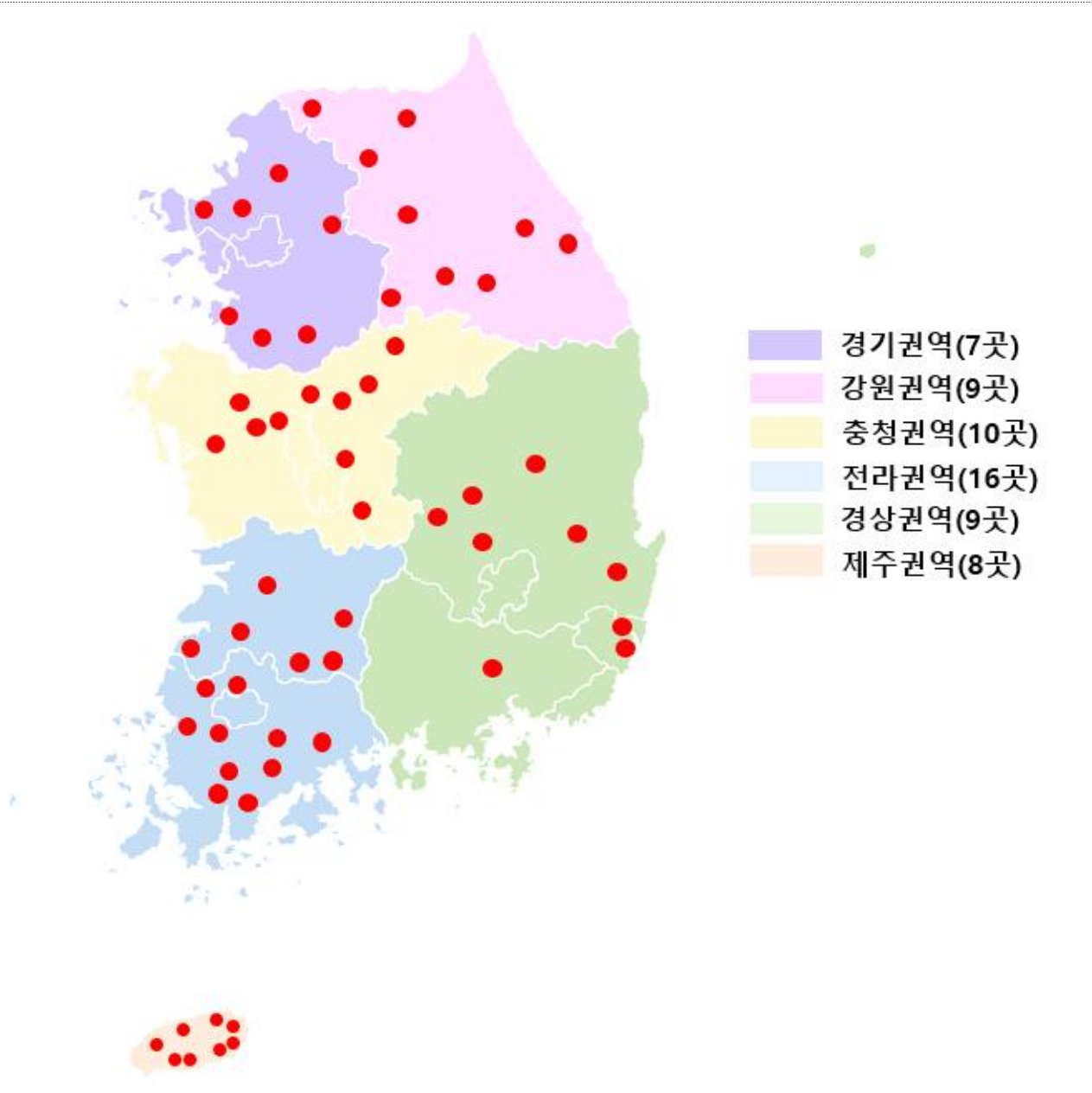
담당 부서	동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김재명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이향심 (054-912-074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2025년 권역별 참진드기 감시 지점〉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몽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국내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좌측부터 유충, 약충, 성충수컷, 성충암컷)